

# 함평군 일자리·민생 규제개혁 속도낸다

## 경진대회 열고 인센티브 확대...주민생활·기업활동 역점 연말까지 자치법규 80여건·자체 발굴 20여개 과제 정비

함평군이 주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혁 추진에 적극 나섰다.

5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규제개혁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의 생산 활동을 저해하는 6차 산업 규제와 구도심 재생 등 유희부지 활용을 촉진하는 지역맞춤형 규제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군은 이를 위해 2018 테마형 규제혁신 현장 발굴과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관

련 규제개선,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등 3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은 올해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중심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 장벽과 중소기업 규제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주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사항과 개선해야 할 규제를 찾는 작업도 계속한다.

지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 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해 군민이 직접 겪고 있는 출생·육아 등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함평군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실·과·소별로 제출된 안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우수 규제안건 발굴공무원과 부서에는 시상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과중심 자율경쟁 규제혁신 체계의 초석을 다진다는 목표다.

또 이를 통해 제안된 규제안건들은 지

역 맞춤형으로 채택해 주민생활과 안전, 소기업 창업활동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군은 이와함께 법제처 선정 필수정비 대상 조례를 포함한 협업과제 등 자치법규 80여건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비롯한 상위법령 위반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군이 자체 발굴한 20여개 과제를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오금열 함평군 기획감사실장은 "성과 중심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중앙부처에 해결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함과 동시에 군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 신안 하의도 유스호스텔 문 열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에 유스호스텔이 문을 열었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3일 하의면 후광마을에서 하의해양데파크 유스호스텔 개관식(사진)이 열렸다.

신안군은 김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한민족 평화통일을 정신을 계승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및 체험학습을 지원하고자 85억원을 들여 유스호스텔을 건립했다.

유스호스텔은 5만3678㎡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연면적 1682㎡) 규모로 조성됐으며 13개 객실에 총 78명을 수용할 수 있다.

현재는 신안군 시설관리사업소(061-240-4063)나 하의면사무소(061-240-3812)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추후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날 개관식과 함께 김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도 함께 열렸다.

신안군은 기존 동상이 김 전 대통령과 그의 이미지와 동떨어진 경직된 모습이라는 여론을 수렴해 사업비 1억3200만원을 들여 새롭게 동상을 설치했다.

새 동상은 김 전 대통령이 전통 옷인 두루마기를 입은 채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한 손에 올려놓고 있다.

기단에는 김 전 대통령의 별명이자 겨울을 뜻하게 참고 이겨내고 봄에 꽃을 피우는 인동초(忍冬草)가 새겨져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지난 2일 이윤신 무안경찰서장 등이 청계파출소 현관에서 '여성·다문화 인권보호 시범운영 파출소' 현판 제막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안경찰서 제공>

## 무안경찰 인권보호 시범 파출소 운영

무안경찰서(서장 이윤신)가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자체시책으로 인권보호 시범 파출소를 운영한다.

5일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인권 지향적으로 바꾸는 등 각종 인권 친화적 제도와 환경·시설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무안경찰청은 사회적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치안수요에 맞춰 인권테마 지구대·파출소를 지정해 인권보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인권테마 지정관서의 지구대·파출소장은 인권담당관이 돼 인권단과 상담, 경찰관의 인권침해여부를 점검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윤신 무안경찰서장은 "치안수요 맞춤형 인권시책으로 국민중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기자 jdh@

## 함평읍 백련마을 농업환경 보전 실증연구 지구 선정

함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실증 연구 지구에 함평읍 백련마을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마을 내 토양과 대기, 환경 등 농업·농촌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함평 백련마을을 포함한 전국 5개 마을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현장실사를 통해 함평 백련마을, 보령 장현마을, 문경 회양산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3개소에는 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함평군은 앞으로 (주)지역활성화센터와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등과 용역 협약을 체결해 주민교육과 환경개선활동 등을 점검하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백련마을 주민이 심사위원에게 마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3일 군유업전에서 열린 채용행사에서 김준성(사진 왼쪽) 영광군수 등이 소금을 받고 있다. <영광군 제공>

## 영광군 소유 염전 천일염 첫 생산...200여명 참석 채용 행사

영광군은 지난 3일 군 소유 염전에서 천일염 첫 생산을 알리고 무사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천일염 채용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준성 군수와 김점기 염산면장, 손재관 천일염생산자협의회장, 김영관 영백염전 회장, 민동성 대표, 기관사회단체, 천일염업체 대표와 생산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군은 천일염 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을 통한 고급화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경쟁력 제고와 생산가격 안정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염전 체험장 운영과 소금 찜질방, 족욕탕, 소금 레스토랑 운영 등을 구상하고 있다"며 "관광객 유치와 천일염을 이용한 화장품과 기능성 제품개발 지원 등을 통해 천일염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 영광농기센터 PE필름 논물 가두기 시연회

"물관리 걱정, 논두렁 PE(폴리에틸렌) 필름 설치로 해결해요."

영광군은 지난 2일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서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하고 논물을 가두기 위해 논두렁에 PE필름을 설치하는 시연회를 열었다.

지난 2016년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논두렁 PE필름 설치 사업은 농가의 긍정적 반응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사업은 논두렁에 폭 30cm, 두께 2mm 정도 되는 PE필름을 포클레인에 부착된 기계로 논두렁을 따라 중간에 매설해 땅속 동물로부터 논두렁을 보호하고 논물 손실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군은 지난 2016년에는 50ha, 2017년에는 220ha를 설치했고 올해 하반기까지 400ha를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PE필름이 설치된 논두렁은 논두렁에 잡초가 자라지 않아 풀베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며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생산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 나주, 2층주택,사정상"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1000만원~~ 급매 - 6200만원
- (2018년 4월 10일까지 완불조건)
- 문의. 010-3605-5000